

석유업계소식

“신규시설투자의 餘力を 상실한 精油産業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石油協會 주최 세미나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11월 8일 하오 서울프라자호텔 덕수홀(22층)에서 精油社 및 石油유관업체임직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석유세미나를 가졌다.

「석유정제의 변화와 정유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 후지와라·하지메(藤原 肇) 박사(국제석유콘설탄트), 다케모토·마사시(竹本 正) 日本石油連盟재무부차장, 李鍾學 京仁에너지전무, 尹秀吉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 등 4명의 연사가 나와 석유정제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정유업계측 연사로 나온 李鍾學 전무는 「80년대 석유정제전망과 정유산업의 대응전략」의 발표를 통해 국내유가 구조는 국제가격 구조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가격구조하에서는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重質油분해시설과 탈황시설에 대한 신규투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 신규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가격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석유사업기금의 적절한 조정과 활용으로 정유사의 신규투자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李전무는 또한 당초 정부는 올해 환율상승율을 3%로 예측했으나, 지난 11월초에 이미 6%선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7% 상승할 경우 정유사들은 엄청난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 환율·유가연동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尹秀吉 동력자원부석유조정관은 「석유정제의 변화와 석유정책의 대응과제」의 발표를 통해 『정부는 현행 직접 규제방식의 油價제도 운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油價를 단계적으로 자율화시켜 현행 직접규제 油價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유종의 가격을 자율화 시켜 현행 정부의 「판매가격」告示 대신 「판매가격공식」을 고시하고, 「판매가격공식」告示에서 제외되는 油種은 가격심사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2단계로 「판매가격공식」 적용 대상을 나머지 유종으로 확대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1~2개 유종을 제외한 全유종의 가격공식을 폐지하는 등 油價관리에 있어서 종래의 정부 직접규제의 폭을 축소하여 간접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動資部, 가스사고예방캠페인

11월 1일부터 4개월간

동력자원부는 겨울철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가스사고예방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사고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市道에 지시했다.

동자부는 각 시도별로 석유가스유동협회·도시가스사업자·요식업협회·소방서·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계관으로 가스안전 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충전소·도시가스사용시설·판매업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주관으로 아파트·호텔·요식업소 등 가스를 많이 쓰는 전국 2천3백30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실시를 펴나가도록 했다.

국내의 가스사고는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크게 늘어 지난 79년의 11건에서 80년에는 16건, 81년 21건, 82년 28건으로 연 36.5%의 높은 사고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만도 16건의 각종 가스사고가 일어났다. *

內資 100% 投資로 石油탐사

浦項 앞바다 6 區区에서

石油開發公社는 지난 10월 21일 석유부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진 浦項 앞바다 대륙붕 제6 광구 북부 지역에서 대륙붕 석유개발사상 처음으로 1백% 국내자본에 의한 물리탐사에 착수했다.

油開公은 정부의 중장기 석유개발계획에 따라 美国의 CSI社와 탐사계약을 체결, 오는 11월말까지 약 40일동안 물리탐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석유개발기금 약 1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탐사는 최신 탐사장비를 갖춘 美国의 발틱 실류가 약 3천 Km에 대한 정밀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油開公, 動資研 등 국내기술진 4 명이 승선, 선진탐사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번 탐사결과는 내년 4월말까지 전산처리 등 자료해석을 통해 최종보고서가 작성된다.

低硫黃油 공급확대 추진 環境庁, 34 個지역으로

환경청은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과 蔚山 등 일부공단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低硫黃油의 공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정용 연료등도 유류 및 연탄에서 가스로 代替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청은 관계부처와 협의, 오는 88년까지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을 42% 가량 줄여 환경기준치인 0.05PPM을 달성키 위해 현재 수도권과 蔚山 등 일부 지역에만 공급되고 있는 低硫黃油를 전국 34개 공단과 전체 차량에 대해 1.6% 또는 1.0%짜리 B-C油와 0.4% 짜리 輕油를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청은 이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B-C油(1.6%, 2.5% 2종류)

를 오는 87년 부터 유향성분이 1.0% 또는 1.6%인 低硫黃油로 하루에 각각 2 만배럴, 16만배럴로 확대 공급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低硫黃油 사용량은 하루에 1.6%짜리가 4 만5 천배럴, 2.5% 짜리가 5 만배럴이다.

또 輕油(0.4%)는 현재 하루 4 만7 천배럴에서 오는 87년부터는 14 만9 천배럴로 확대 공급하고, 가스도 현재 연간 사용량 82만 1천톤에서 내년에는 96만 8천톤, 86년에는 1백30만9천톤, 88년에는 2백79만 8천톤으로 각각 확대 공급해 아황산가스 등 황산화물 배출량을 크게 줄인다는 것이다.

정유공장 본관준공식 참석

崔鍾賢 油公사장, 10월 21일



崔鍾賢 油公사장은 지난 10월 일 油公 蔚山정유공장의 신축본관 건물준공식에 참석, 개관테이프를 끊고 내부를 둘러본 뒤 공사관계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PBEC 韓國측위원장에 피선

具平會 湖油사장, 서울총회에서



具平會 湖南精油사장은 지난 10월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83년도 태평양경제협력회(PBEC) 韓國위원 회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PBEC는 지난 67년 濠洲, 캐나다, 日本, 뉴질랜드, 美国 등 태평양 연안 5개국의 경제인들에 의해 발족된 국제 민간 경제기구로서 태평양 연안국가간의 경제적 협력과 사회발전을 통한 상호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태평양연안국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82년 法人稅납부 100大企業

- 2位 京仁에너지
- 3位 油公
- 7位 湖南精油
- 97位 極東石油

작년 한해동안 油公, 湖南精油, 京仁에너지, 極東石油 등 精油 4社は 불황속에서도 2백8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 나라살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82년도 1백대 法人稅 고액납세법인명단에 따르면, 京仁에너지가 1백2억4천1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81년에 이어 2位를 固守했고, 油公은 1백억7천2백만원으로 3位(81년 1위), 湖南精油는 63억5백만원으로 7위(81년 20위)를 기록했으며 81년에 1백위 안에 끼지 못했던 極東石油는 9억5천9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97위로 뛰어올랐다.

81년에 이어 2位를 고수하고 있는 京仁에너지는 6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증설투자를 앞세워 京仁화학발전에서 꾸준히 이익을 올려 외형은 油公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소득은 20억원이나 더 올렸다. 반면 油公과 湖南精油는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과 가동율의 부진, 비싼 原油도 입등 때문에 외형에 비해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 백대 법인 중 매출액규모에서 1위는 油公으로 2 조 6 천 8 백84억원이며, 湖南精油는 2 조 2 천 7 백39억원, 京仁에너지는 5 천 4 백61억원, 極東石油는 1 천 4 백89억원으로 이들 精油会社의 총외형은 5 조 6 천 5 백75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LPG (液化石油가스) 도입업체인 大成에너지(현재의 正友에너지)는 81년에 1 백位안에 들지 못했으나, 82년에는 55位로 뛰어 올라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기념관성금 3 억원 기탁
金昇淵 韓國火藥그룹 회장



金昇淵 韓國火藥그룹 회장은 지난 11월 9일 독립기념관 건립성금으로 3 억 2 천만원을 건립추진위원회에 기탁했다.

第三石油사장에 孟元起상무
지난 9 월 26 일자로



京仁에너지는 지난 9 월 26日자로 孟元起 仁川정유공장장을 직영판매회사인 第三石油사장으로 선임했다.

極東石油 創立 第23周年紀念行事 開催

極東石油그룹은 지난 10월 22일 창립23주년을 맞아 그룹사임직원 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釜山공장은 10월 29일)

이날 기념사에서 張洪宣사장은 会社의 성장과 발전이 全任職員 여러분의 勞苦로 이루어진 것임을 致賀하면서 앞으로도 倍前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사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張洪宣사장은 支社 판매관리과 丁炯鍾課長 등 19명에게 10년근속표창과 함께 기념품을 수여하고 午餐을 함께 하였다.

한편 釜山공장에서는 기념행사로 단합심을 함양하기 위해 6km 단축 마라톤대회를 開催하였는데, 120여명이 참가하여 完走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京仁에너지는 또한 지난 11월 1일자로 李英吉정유공장부공장장을 공장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간 불우경찰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온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張洪宣 極東사장, 대통령표창
불우경찰 자녀돕기 공로로

三星그룹, LPG사업에 참여
英國系 BP와 合作으로



張洪宣 極東石油사장은 지난 12년

三星그룹이 LPG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三星그룹이 확정된 LPG사업계획에 따르면, 三星은 英國系 石油메이저인 BP (브리티시 피트롤리엄) 와 合作으로 내년초 韓英가스(가칭) 를

설립, LPG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는 것이다.

(비상임)에 姜龍植 中央大교수를, 각 선임했다.

韓國石油品質檢査所 창립

● 理事長 姜龍植 교수

이 검사소는 앞으로 윤활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불량석유제품의 유통단속업무를 맡게 된다.

韓國石油品質檢査所는 지난 10월 26일 창립이사회를 열고 초대이사장

石油協會人事

□ 轉 補

- ▲ 기획부 기획과 代理 金演會 (업무부총무과 代理)
- ▲ 기획부 조사과 代理 辛敬寅 (업무부업무과 代理)
- ▲ 홍보실 홍보과 代理 梁德烈 (기획부기획과 代理)
- ▲ 업무부 업무과 許仁旭 (기획부조사과) (11. 1)

□ 海外石油産業動向 □

아시아의 石油生産 및 消費展望

아시아의 石油輸入依存度는 1995년까지도 계속 현재와 마찬가지로 50% 水準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소재한 東西文化센터의 한 研究團體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 中東을 제외한 아시아 16國의 總産油量은 약 430萬b/d에 불과했으나 消費는 910萬b/d에 달해 그중 53%인 480萬b/d를 수입하였다. 한편으로 1995년에 있어서 産油量은 1982년보다 37% 높은 590萬b/d로 늘어날 것이지만 消費도 같은 비율로 增大, 1,234萬b/d에 달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輸入도 640萬b/d로 늘어 역시 輸入依存度가 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시아의 이같은 石油消費 予想增加率은 빠른 속도의 産業化 및 生活水準의 향상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1980년대末에는 아시아의 石油消費가 西유럽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國家別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産油量은 1990년에 最高比率인 180萬b/d에 도달한 후 그뒤 계속 감소, 1995년에는 150萬b/d로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消費量은 1982-1995년 동안 70%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 原油輸出이 1982년의 86.1萬b/d에서 1995년에는 68萬b/d로 감소될

것이다.

아시아 最大 産油國인 中共은 現在 開發을 착수하고 있는 海洋鉅區로부터의 産油量이 증대되어 1995년에는 現在보다 50% 늘어나 300萬b/d의 原油를 生産할 것으로 展望되었다. 그러나 中共의 消費도 13년동안 45%나 늘어 輸出量은 現在의 30萬b/d에서 20萬b/d 높은 50萬b/d가 될 것이다.

인도의 産油量은 倍增, 1995년에는 80萬b/d로 늘어나며 消費는 54% 늘어난 110萬b/d가 되어 石油自給率이 現在의 단지 54%에서 73%로 높아질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産油量은 1984년 40萬b/d에 도달, 1995년까지 계속 그같은 水準을 維持함으로써 1995년의 石油輸出이 약 28萬b/d로 現在보다 41%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브루네이는 産油量이 減少되어 1995년의 原油輸出이 現在의 1/3水準인 5.5萬b/d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필리핀, 泰國은 産油量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予想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잘것 없는 水準으로 予想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필리핀에서 操業하고 있는 外國石油會社들은 投資對象을 다른 國家에 돌리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